

부모통찰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강상현¹, 손정락^{2*}
¹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²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he Effect of Parental Insight on Parenting Behavior -focusing on the mother of middle school students

Sang-Hyun Kang¹, ChongNak Son^{2*}

¹Ph.D.,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²Prof., Dep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육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진 주요한 변인들 외에 부모통찰의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양육행동과 부모통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부모통찰 외에 과거 아동기 경험(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원가족 건강성), 현재 삶에서의 양육 관련 경험(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0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투입된 변인들 모두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통찰은 양육행동 하위요인들 중 과보호를 제외한 애정, 거부·통제, 독립성 지향 행동에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부모통찰, 양육행동, 원가족 건강성, 부모역할만족도, 결혼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al insight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arental insights in addition to the main variables found to explain parenting behaviors through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o the parental insigh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ast childhood experiences(perceived parenting behavior, family of origin' health) and parenting experience (marital satisfaction, parental role satisfaction) in current life.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202 mothe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ll of the input variables were found to explain the parenting behavior significantly. In particular, parental insight was proved to have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on affection, rejection, regulation, and independence-oriented behavior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ing behavior except overprotective.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Insight, Parenting Behavior, Family of Origin Health, Parental Role Satisfaction, Marital Satisfaction

1. 서론

양육행동은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 가치, 훈육, 태

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녀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부모가 자녀에게 긍정적, 온정적, 민주적이고 수용적

*This manuscript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ongNak Son(jrson@jbnu.ac.kr)

Received November 8,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January 11,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인 태도를 포함한 양육행동을 취하면서 의견을 존중해주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하며, 행동에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2]. 또한 양육행동이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이고 수용적이면서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사교적이고 친화적이며, 주도적인 특성도 증가될 수 있다[3].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처벌적이거나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과잉보호적이거나 학대를 많이 할 경우에는 자녀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거나 성인이 된 이후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인 문제를 겪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4]. 아울러 공포증[5], 건강 염려증이나 천식과 같은 정신신체질환 등[6]도 과거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 상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관계 문제를 넘어 정신건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오는 것인가? 이에 대한 관점과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생애 발달 관점에서 한 개인이 생애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피양육 경험이나 가족관계에서의 경험들이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 개인이 새로 구성된 가정 내에서 부모로서의 행동이나 배우자로서의 행동 방식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7]. 부모,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온 대상관계 이론, 애착이론 및 가족체계이론에서 아동은 어머니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원가족(family of origin)과의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8]. 즉, 아동기 때 부모와의 관계는 물론 원가족과의 관계와 같은 과거 경험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적 작업 모형(Internal Working Model)과 같은 도식을 형성하여 성장 후에도 인성발달[9]이나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10]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의 다세대 전이 개념을 비롯해 사회학습이론에서 강화와 모방의 개념 등을 통해서도 설명되어 왔다[11].

한편, 부모 양육행동의 결정요인과 관련해 가족과정모형을 주장한 Belsky[12]는 부모의 발달사와 인성 같은 부모특성과 함께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직업경험 등 자녀와의 관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 대해 강조하였다. 부모가 겪고 있는 현재 삶에서의 조건이나 주어진 상황

에서의 경험들의 영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과급 가설’에 따르면, 부부 간 갈등이 심해져 결혼 생활에 불안정이 커지게 될 경우 그에 따른 기분, 정서, 행동이 부부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로까지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렇듯 부모는 아동기 자신의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과의 경험으로부터 자신도 모르게 조건화되어진 감정양식과 관계 방식의 영향을 받게 되며, 결혼 이후의 생활에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 방식에서도 영향 받게 된다는 점은 이전 연구들로부터 밝혀져 왔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및 그것이 발현되어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 기여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거와 현재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영향들에 대한 ‘통찰’에서 찾고자 하였다. 부모가 과거 아동기 시절 자신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현재 결혼생활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반복되어 자녀양육에 있어서까지 문제를 경험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일련의 관계성에 대해 충분히 통찰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런 부정적 경험들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14]. 반복되어 온 삶의 문제에 대한 내적 통찰과 자녀에게 미쳤을 자신의 불안정한 양육행동의 근원이 충분히 탐색됨으로써 바람직한 변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15]. 부모가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도 성장과정 동안 혹은 부모역할을 하는 중이라도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고 이를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 효율적인 부모 역할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발현됨에 있어 나타나는 개인차가 무엇인지에 주목했고, 그 개인차를 통찰이라 보았다. 치료적 변화의 필수요소라고 여겨져 오기도 한 통찰[17]은 부모로서의 역할 영역에 한정하여 볼 때 새롭게 개념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통찰은 부모 역할과 관련해 자녀의 내적상태를 포함한 양육관련 문제나 자신의 양육행동 양식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경험해 온 바와 그 경험 속에서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고 개념화 했다.

언급한 바와 같은 개념화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 짓고,

자신의 고통과 증상의 근원과 의미를 파악하며, 이러한 내적 정신작용이 외부현실과 대인관계를 지각하는데 미친 영향을 의식함으로써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증가시켜 가는 것[18]이라고 주장한 Rogers의 통찰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였다. 또한 상담 분야에서 말하는 통찰의 개념들[19] 및 부모-자녀 관계와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개념적 이해를 함께 고려하였다. 아울러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정체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기 때문에 부모통찰을 개념화하기 위해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통찰과 부모 역할 관련 통찰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부모통찰을 개념화하고 연구한 Fonagy[20]의 이론 및 Bowen의 자기 분화 개념들 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한 치료기제라 생각되는 탈중심화를 포함시켰다.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자의 내적 상태의 변화를 일으켜 부모 역할이나 양육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되어져 오지 못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관계 및 자녀 양육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자신의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 원가족 경험을 비롯해 현재 부모 역할 수행과 관련해 강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 등이 자녀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변인이며, 그러한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들[21,22]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져 있는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원가족과의 경험(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와 같은 기존의 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부모통찰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2. 방법

2.1 참가자 및 자료수집

연구 수행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 소재 두 개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 384쌍 그리고 추가로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부모와 자녀 12쌍을 포함해 모두 396쌍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회수된 자료

는 277쌍(69%)이었는데,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 모두의 자료가 충실히 작성된 자료는 245쌍에 그쳤다. 이어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 선정을 위해 학생의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자료 중 각 영역들에서 하나 이상에서 문제(T점수 70점 이상)가 확인된 경우(19사례)와 어머니의 자료 중 한국판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에서 21점 이상으로 우울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24사례)까지 제외되어 최종 자료는 총 202쌍이었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어머니의 연령 36~50세까지였으며, 주로 41~45세(47.0%)가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고졸(41.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30.7%), 대졸(20.8%)이 그 뒤를 이었다. 취업 상태는 전일제로 취업한 상태로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경우가 66.4%로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 외에는 전업주부가 29.2%로 많았다. 자녀들은 1학년(69%)이 대부분이었고, 주로 여학생의 응답률(68.8%)이 높았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연구 참가자인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아동기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 경험에 대해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통해 확인했고,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성 정도 또한 원가족 척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참가자의 현재 삶의 경험 중 양육행동과 관련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는 결혼만족도 척도와 부모역할만족도 척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부모통찰은 개인 내적 자기성찰 측면을 살피기 위해 탈중심화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모 역할 관련 통찰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모성찰 척도에 아동기 원가족 경험과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알아보았다. 이 외에 연구 참가자 중 정신병리적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경우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겨 이를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울 척도, 참가자 자녀들에게는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를 실시하였다.

통찰 척도

연구 참가자의 부모통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탈중심화 척도와 함께 Sin[23]이 최근 개발한 영유아

기 부모성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가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문항 내용이나 각 요인의 구성개념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하위요인은 자녀 이해(6문항), 부모역할이해(7문항), 행동인식(7문항)이며 총 20문항 5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내적 합치도는 전체 .86이고, 각 하위변인은 .76~.82이다. 한편, 위의 척도에 Kim[18]의 척도 개발당시 제외되었던 「나와의 관련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 2개를 본 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부모통찰 개념에 부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추가했다(21번과 22번 문항). 나와의 관련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탈중심화 척도

탈중심화 정도를 살피는 것은 연구 참가자의 부모통찰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실존이 조맹된 상태와 개념적 유사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용한 척도는 Fresco, Moore, van Dulmen, Segal, Teasdale 및 Williams[24]가 개발한 Experience Questionnaire를 Kim, Im 및 Kwon[25]이 번안한 것이다. 모두 11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양육행동척도

이 척도[26]는 현재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취하고 있는 양육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총 5개 하위요인(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일관성, 독립성 지향)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애정 .86, 거부·통제 .79, 과보호 .71, 일관성 .57, 독립성지향 .82였다. 이 중 일관성 요인은 내적 합치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척도

참가자의 아동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Heo[27]가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평가도구로 학대, 방임, 감독,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과잉 기대, 애정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 척도가 청소년을 대상을 개발된 척도라는 점

에서 성인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을 때 양육행동 구성개념의 타당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2인 외에 임상심리전문가 2인이 각 요인들 내 문항들을 점검하고 일부 참가자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61에서 .87이었는데, 비밀관성 요인의 경우 내적 합치도(.61)가 매우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원가족 척도

원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Choi[28]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FOS-55) 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6문항은 가정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격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척도 개발 당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95로 유사하였다.

결혼만족 척도

한국판 부부 적응 척도(결혼만족척도) 단축형 10문항을 사용하였다[29].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부모역할만족 척도

부모역할만족 척도[30]는 총 48개의 문항으로 일반적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 지지, 부모역할 갈등, 자녀의 지지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모역할갈등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해야 한다. 요인별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 점수만을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한국판 CES-D 척도

이 척도[31]는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 상태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총 20문항으로 Likert 형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되며, 내적합치도는 .85였다.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K-YSR[32]은 총 112문항으로 이뤄진 자기보고식 3점

Likert 척도로써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나뉘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우울·불안, 위축, 신체증상, 사회적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의 8가지 임상척도로 구성된다. 그 외에 기타 문제척도, 상위척도인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총점(총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는 .59-.93 이었다.

분석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외에 주요 변인들 간 관계, 특히 양육행동과 다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주요 변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특히, 부모통찰)을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척도 값은 결혼만족도 척도와 CES-D 척도를 제외한 척도들의 문항 평균값을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결혼

만족도 척도의 경우 문항 점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고, CES-D는 평균값 보다는 총점이 참가자의 우울 상태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시켜줄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4.1 주요 변인들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참가자가 경험한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양육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내적 통찰 수준, 현재 삶에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되는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참가자의 아동기 경험인 과거 자신의 부모 양육행동에 대해 어떻게 지각했는지 그리고 원가족 건강성이 참가자의 양육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이어서 참가자의 통찰 특성 및 양육행동 관련 현재 삶의 경험(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참가자의 양육행동 중 애정과 다른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참가자가 지각한 과거 아버지의 양육행동들 모두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확인되었다. 다만,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의 경우 정적 상관이 있었던

Table 1.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ain variables (N=202)

Variable	Sub-variable	M		SD		
		Fa	Mo	Fa	Mo	
Childhood Experience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upervision	2.99	3.26	.62	.55
		rational explanation	2.89	2.93	.59	.55
		excessive expectation	1.84	1.75	.59	.51
		excessive interference	1.73	1.80	.51	.52
		abuse	1.33	1.26	.49	.37
		neglect	1.63	1.57	.58	.49
	affection	3.11	3.13	.63	.53	
	family of origin health		3.91		.56	
Parental Insight	insight		3.54		.36	
	decenterization		3.40		.60	
Current Experience	marital satisfaction		39.46		7.08	
	parental role satisfaction		3.32		.41	
Parenting Behavior			3.98		.58	
	rejection / regulation		2.25		.60	
	overprotection		2.35		.55	
	independence oriented		3.85		.61	
Depression(CES-D)			7.5		4.93	

Note. marital satisfaction and depression scale(CES-D) is the total score of the item scores, and the other variables are the average of the items.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Fa: Father, Mo: Mother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hildhood experience, insight, marital satisfaction, parent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Variable	affection		rejection /regulation		overprotection		independenc oriented		
	Fa	Mo	Fa	Mo	Fa	Mo	Fa	Mo	
supervision	.33***	.34**	-.28***	-.12*	-.27***	-.31***	.06	.09	
rational explanation	.39***	.43**	-.32***	-.36***	-.32***	-.34***	.22***	.20*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excessive expectation	-.23***	.09	-.01	-.12*	-.11	-.02	-.03	.10
	excessive interference	-.19*	-.28***	.01	.34***	.12*	.33***	-.22***	-.19**
	abuse	-.26**	-.27***	.02	.21**	.08	.12*	-.01	-.11
	neglect	-.34***	-.47***	.28**	.32**	.20*	.25***	-.07	-.15
	affection	.40***	.56***	-.24***	-.31***	-.27***	-.20*	.21**	.29***
Family of origin health	.50***		-.39***		-.45***		.36***		
Insight	.65***		-.55***		-.23**		.42**		
Decenterization	.43***		-.27***		-.31***		.64**		
Marital satisfaction	.28**		-.21**		-.38**		.10		
Parental role satisfaction	.52***		-.53***		-.49**		.29**		

Note. * $p < .05$, ** $p < .01$, *** $p < .001$

Fa: Father,

Mo: Mother

반면,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거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지각 특성에서도 과잉기대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정적 및 부적 상관의 패턴은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거부·통제와 주요 변인들 중 지각된 양육 행동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아버지로부터의 양육 경험에 있어서는 감독, 합리적 설명, 방치, 애정만이 유의한 부적 상관관이 확인되었다. 반면, 과거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특성에서는 강도가 다르기는 해도 일곱 가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과보호와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 중 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방치, 애정은 공통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과잉기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학대는 어머니에 대한 피양육 경험과 관련해서만 의미 있고, 아버지의 학대는 과보호 경향과 유의한 상관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가자 양육행동 가운데, 독립성 지향과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 과잉간섭, 애정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어머니의 방치 행위도 자녀에게 독립성 지향 행동을 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가자가 과거 양육자인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한 피양육 경험 외에 원가족 건강성, 부모통찰(통찰,

탈중심화),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와 현재 양육행동인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독립성 지향 간의 관계에서는 애정과 독립성 지향과는 대부분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거부·통제와 과보호와는 부적 상관관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4.2 부모의 아동기 경험, 부모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 역할 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기 경험이 현재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부모통찰을 비롯해 결혼생활에서의 만족 정도 및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 수준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의 아동기 경험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피양육 경험 각 일곱 개 영역(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과 원가족 건강성이었고 부모통찰은 통찰과 탈중심화였으며, 현재의 삶에서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기초로 상정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인은 양육행동척도의 하위요인인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및 독립성 지향이었고, 위계적 회귀분석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각 종속변인에 대해 1단계에서는 공변인(직업, 종교, 학력, 자녀의 성별)만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기 경험을 측

정하기 위해 실시된 측정치를 투입했으며, 3단계서는 양육 관련 현재 삶의 경험으로 상정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 개념인 부모통찰 관련 측정치를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해 점검한 결과 Dubin Watson은 2.20~2.57, 분산팽창요인의 경우 1.09~8.01이었으며, 공차한계는 투입된 변수들 모두 0.1이상으로 확인되어 관련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1 아동기 경험, 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가 양육행동 ‘애정’에 미치는 영향

참가자의 아동기 경험, 부모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만족도에 포함된 19개의 변인들 중에서 현재의 양육행동 중 ‘애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을 찾기 위한 중다회귀 분석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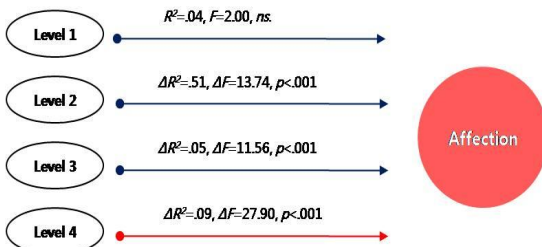


Fig. 1. Effects of parent's childhood experience, parental insight,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affection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참가자의 현재 양육행동 중 ‘애정’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 1단계에서 공변인들(직업, 종교, 자녀의 성별, 학력)은 변량의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2=.04, F=2.00, ns$). 2단계에서는 공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로부터의 피양육 경험과 원가족 건강성이 현재 참가자 자신의 양육행동(애정)의 51%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51, \Delta F=13.74, p<.001$). 특히, 애정 관련 양육행동에 미치는 과거 아동기 경험으로는 아버지의 감독($\beta=.19, p<.05$), 과잉기대($\beta=-.28, p<.01$)와 애정($\beta=.39, p<.01$)이었으며, 어머니로부터는 과잉간섭($\beta=-.28, p<.01$)과 애정($\beta=.52, p<.001$)이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으려면, 성

장 과정 중에 원가족으로 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수용 받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beta=.27, p<.001$).

다음 3단계에서는 공변인과 아동기 경험 및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행동(애정)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R^2=.05, \Delta F=11.56, p<.001$).

마지막 4단계에서는 부모통찰 변인으로 부모통찰척도 점수와 탈중심화 점수를 추가로 투입하였고, 그 결과 9%의 추가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Delta R^2=.09, \Delta F=27.90, p<.001$).

4.2.2 아동기 경험, 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가 양육행동 ‘거부·통제’에 미치는 영향

‘거부·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공변인들(직업, 종교, 자녀의 성별, 학력)은 1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4, F=7.83, p<.001$). 공변인들을 통제한 2단계에서 독립변인들(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원가족 건강성)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37%였다($\Delta R^2=.37, \Delta F=9.28, p<.001$). 부모로부터의 피양육 경험 중 ‘거부·통제’ 관련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과잉간섭($\beta=.38, p<.001$; $\beta=.59, p<.001$)과 아버지의 학대($\beta=.33, p<.001$), 그리고 원가족 건강성($\beta=-.15, p<.05$)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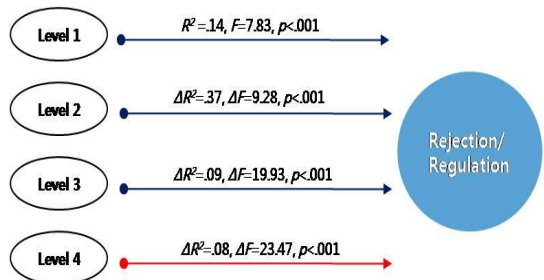


Fig. 2. Effects of parent's childhood experience, parental insight,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rejection/regulation

다음 3단계에서는 공변인과 아동기 경험 및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가 ‘거부·통제’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R^2=.09, \Delta F=19.93, p<.001$). 이는 현재 삶에서 결

혼만족도가 낮고 부모역할 관련 만족도가 좋지 못할 때 거부와 통제적인 양육행동 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beta=-.24, p<.01; \beta=-.61, p<.001$). 마지막 4단계에서는 부모통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추가적인 설명력이 8%여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8, \Delta F=23.47, p<.001$). 다만, 부모통찰 변인 중 통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beta=-.43, p<.001$)이 있는 반면, 탈중심화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5, ns$).

4.2.3 아동기 경험, 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가 양육행동 ‘과보호’에 미치는 영향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참가자들의 양육행동 가운데 ‘과보호’를 설명하는 공변인의 설명량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R^2=.09, F=4.93, p<.001$). 2단계에서 공변인을 통제하고 난 이후 독립변인들(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원가족 건강성)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4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Delta R^2=.40, \Delta F=9.80, p<.001$). 부모로부터의 피양육 경험 중 ‘과보호’ 관련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의 감독($\beta=-.22, p<.05; \beta=-.41, p<.001$)과 애정($\beta=-.29, p<.05; \beta=-.32, p<.01$) 그리고 아버지의 과잉기대($\beta=-.22, p<.05$)와 어머니의 과잉간섭($\beta=.45,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가족 건강성이 좋을수록 과보호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beta=-.26,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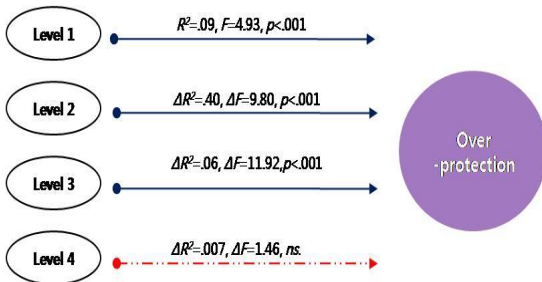


Fig. 3. Effects of parent's childhood experience, parental insight,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overprotection

다음으로 공변인과 아동기 경험 및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을 통제한 3단계에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가 ‘과보호’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R^2=.06, \Delta F=11.92, p<.001$). 이는 현재 삶에서 결혼만족도가 낮고 부모역할 관련 만족도가 좋지 못할 때 부모가 자

신의 자녀에게 과보호 경향을 많이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beta=-.27, p<.01; \beta=-.21, p<.05$).

마지막 4단계에서는 부모통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추가적인 설명력이 0.7%에 과보호에 미치는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elta R^2=.007, \Delta F=1.46, ns$).

4.2.4 아동기 경험, 통찰, 결혼만족도 및 부모역할 만족도가 양육행동 ‘독립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

Fig.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 참가자의 현재 양육행동 중 ‘독립성 지향’을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 1단계에서 공변인들은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5, F=2.63,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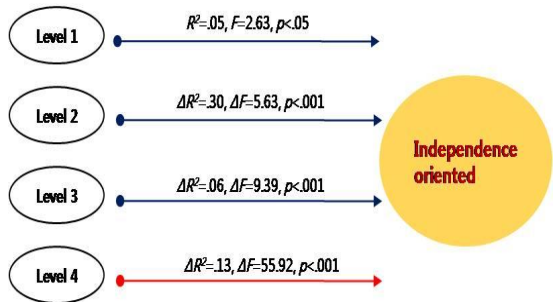


Fig. 4. Effects of parent's childhood experience, parental insight,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independence oriented

2단계에서 공변인을 통제하고 난 이후 독립변인들(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과 원가족 건강성)의 추가적인 설명량은 3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Delta R^2=.30, \Delta F=5.63, p<.001$). 부모로부터의 피양육 경험 중 ‘독립성 지향’ 관련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의 과잉간섭, 학대, 방치로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것이 강했다($\beta=-.28, p<.05; \beta=-.20, p<.05; \beta=-.33, p<.05$). 반면, 어머니로부터의 양육경험 중에는 긍정적 양육경험에 따른 영향에 의해 독립성 지향 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이 그것이다($\beta=.23, p<.05; \beta=.35, p<.01; \beta=.29, p<.05$). 아울러 원가족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충분히 수용 받고 표현할 수 있는 경험들을 했을 때에도 자녀 양육에서 독립성 지향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beta=.36, p<.001$).

3단계에서 공변인과 아동기 경험 및 원가족 건강성의 영향을 통제 후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를 투입한 결과 '독립성 지향'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elta R^2=.06$, $\Delta F=9.39$, $p<.001$). 즉, 현재 삶에서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모역할 관련 만족도가 높을 경우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beta=.39$, $p<.001$; $\beta=.38$, $p<.001$). 마지막 4단계에서 부모통찰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13%의 추가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Delta R^2=.13$, $\Delta F=55.92$, $p<.001$). 그러나 부모통찰척도를 통해 측정된 통찰 값의 영향력($\beta=.13$, ns)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탈중심화의 영향만이 유의했다($\beta=.52$, $p<.001$).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로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확인된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원가족과의 경험(원가족 건강성), 결혼생활 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에 더해 연구 참가자인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통찰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의 양육행동과 과거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피양육 경험인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감독,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가자의 현재 양육행동들(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독립성 지향) 가운데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볼 수 있는 애정과 독립성 지향의 경우 지각된 부모양육행동들 중 긍정적 양육행동들(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들(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과는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부·통제와 과보호는 지각된 부모양육행동들 가운데 부정적 양육행동들과 정적상관을 보이고, 긍정적 양육행동들과는 대체로 부적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다(7,12,33).

참가자가 과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지각한 바와 현재 자신의 양육행동들 중 애정과 관계성에 대해 먼저 살펴본 바 과거 아버지의 양육행동들 모두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과거 자신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 특성에서도 과잉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각된 부모양육행동들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부모로부터 가능한 한 과도한 기대나 간섭을 받지 않고 학대나 방치 경험을 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감독과 합리적 설명 그리고 충분한 애정을 경험할 때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따뜻하고 친밀히 대하고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해주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거부·통제 행동의 경우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피양육 경험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던 반면, 아버지로부터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경험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이는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또한 아버지로부터의 좋지 않은 양육경험보다는 적절한 감독과 양육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또 충분히 친밀감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하게 됨을 시사한다. 이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독립심이 격려되고 수용된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 더욱더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수 있고 거부나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덜 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34].

과보호 행동의 경우 참가자가 과거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경험들 중 과잉기대 외에 아버지의 학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현재 자녀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하는 행동들의 경우 과거 아버지로부터의 학대 경험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그 보다는 충분한 보살핌과 관심, 피양육 경험에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규준이나 이유를 듣지 못했다거나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지나치게 과보호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 듯하다.

독립성 지향 행동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독, 과잉기대, 학대 및 아버지의 방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보다는 부모로부터의 애정 및 합리적 설명과 강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과잉간섭과는 강한 부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성장기에 자신의

부모로부터 언어적, 비언어적 친밀감의 표현을 많이 경험하고 존중 받고 수용 받는 경험을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이유를 듣는 등 긍정적 피양육 경험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관여나 간섭, 독립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모의 기준에 따라야만 했던 경험이 적었을수록 독립성 지향 행동을 자신의 자녀에게 많이 보이게 됨을 시사한다.

한편,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통찰, 탈중심화의 경우 참가자의 현재 양육행동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긍정적 양육행동(애정, 독립성 지향)과는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 부정적 양육행동(거부·통제, 과보호)과는 일관되게 부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이는 어린 시절 가정 내에서 얼마나 자율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하며 자랐는가가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해 양육행동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 연구들[35,36]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로 협력하고 존중을 많이 하여 부모 역할에서도 더 몰입을 많이 하고 자녀와의 관계 방식도 더 긍정적이거나 부모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때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취한다는 연구들[37,38]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역할만족도 또한 높을 때라야 자녀 양육과정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고,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취하는 반면,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상대적으로 적게 취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확인 된 것이다 [39]. 이 외에 본 연구자가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새롭게 상정한 부모통찰(통찰, 탈중심화) 변인도 앞서 언급한 주요 변인들과 같이 연구 참가자의 현재 양육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양육자가 부모 역할과 관련해 자녀의 내적상태를 포함한 양육관련 문제나 자신의 양육행동 양식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의 근원을 찾아 관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경험해 온 바와 그 안에서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면 있을 수록 자신의 자녀에게 애정과 독립성 지향 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통제와 과보호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덜 취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만큼 부모통찰 변인이 자녀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인 연구 참가자의 아

동기 경험(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통찰이 현재의 양육행동(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독립성 지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종속변인을 애정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아동기 자신의 부모로부터의 양육경험과 원가족의 건강성만으로 51%나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5%)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통찰 변인의 경우 9%의 설명력을 보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주요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 영향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거부·통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주요 변인들은 유의한 설명력(68%)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경험만으로 유의한 설명(37%)이 가능했고,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의 설명량(9%)도 유의하였으며, 부모통찰 관련 변인들이 추가 투입되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이 나타났다. 다만, 부모통찰 변인으로 투입한 측정치 중 탈중심화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의 양육행동 중 자녀에게 불만을 표시한 다거나 무시하거나 벌을 주어 양육자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될 때 자신과 자녀의 내적 상태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고 자신의 부모 역할과 자녀 행동과의 관계성을 알고 있는 등 통찰 수준이 높을 경우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거부와 통제 행동을 하는 맥락에서 반사적으로 겪게 되는 강렬한 감정 상태에 빠져든다거나 할 때에는 문제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탈 중심화가 쉽게 작동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다음으로 과보호를 종속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도 부모통찰 변인을 포함한 주요 변인들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자의 직업, 종교, 자녀의 성별, 학력과 같은 공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아동기 경험의 설명량이 40%였고, 양육관련 현재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 만의 설명력도 6%로 유의하였다. 그렇지만, 부모통찰 변인 관련 측정치들이 투입되었을 때 추가 설명량에 대한 추가 변량이 유의하기는 했으나, 측정치인 통찰과 탈중심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변인들을 통해 과보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어도 부모통찰 변인은 제한적인 영향력

만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부모통찰보다는 성장기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존중 받지 못하거나 수용 받지 못했다는 경험을 많이 했고,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간섭을 받고 지내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수용 받거나 표현할 수 없었던 성장기 경험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독립성 지향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에서는 아동기 경험, 현재의 양육관련 경험 및 부모통찰 모두 강력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특히, 부모통찰 변인을 투입했을 때 13%로 설명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중심화 측정치만이 유의했고, 통찰 측정치의 경우 유의 수준에 가깝기는 해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외에 탈중심화가 독립성 지향 행동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독립성 지향 행동이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고 문제를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게 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인 듯하다. 양육자가 탈 중심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삶의 문제는 물론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아차릴 수 있고,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되었듯 부모의 아동기 경험, 결혼만족도,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통찰이 양육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경험의 영향은 Bowlby[9]가 제안한 ‘내적작업모형’과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소개된 ‘다세대 전이’ 개념을 통해 설명 될 수 있는바 같이 양육자가 과거 자신의 부모나 원가족으로부터 경험한 관계, 태도, 정서 혹은 행동양식들은 자신의 삶에는 물론 자신이 형성한 새로운 가정 내에서 다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일 수 있다. 부모의 아동기에 대비되는 현재 삶에서의 경험들인 결혼 만족도와 부모역할 만족도는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족과정모형’을 주장한 Belsky[12]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하는 발달사 뿐만 아니라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한 자녀와의 관계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이 부모 양육행동의 결정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가정 내 갈등 상황으로 결혼 생활이 불안정해질 경우 그에 따른 정서, 행동이 부부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부모 자녀 관계로까지 전이된다고

하는 ‘과급가설’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설명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 연구들에서 충분히 확인되거나 연구되지 않았던 부모통찰의 영향이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은 관련 연구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해서 자녀의 행위 자체를 다스리기에 앞서 부모 자신이 우선적으로 스스로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들[40,41,42]에서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참가자가 특정 지역에 위치한 일부 중학교 두 곳의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자녀 연령층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해 표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참가자가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 및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보고를 할 때에 과거 경험의 회상을 바탕으로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설문지의 배포가 자녀의 학교를 통해 배부되고 수집되었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서 봉투에 봉해져서 수집되는 과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도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여지가 다소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모통찰 특성과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모통찰 특성을 고려하여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확인하게 된다면, 부모통찰과 양육행동 간 관계성에 대해 보다 명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부모의 아동기 경험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현재 삶의 경험들, 특히 부모통찰이 통합적으로 이해되고 다루어질 때,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H. J. Moon, J. H. Kim, S. H. An, S. E. Yang, Y. J. Im & S. Y. Han. (2010). *Child development*. Seoul: Chang Ji Sa.
- [2] E. S. Schaefer.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Psychology*, 226-235.
- [3] M. Y. Jang.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ren, self-esteem and problem solving ability*(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4] A. McKinnon, A. S. Henderson & G. Andrews. (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5] W. A. Arrindell, P. M. G. Emmelkamp, A. Monsma & E. L. S. Brillman. (1983). The role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practices in the etiology of phobic disorders: a controlled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3, 183-187.
- [6] G. Parker & P. Lipscombe. (1980). The relevance of early parental experiences to adult dependency, hypochondriasis and utilization of primary physician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3, 355-363.
- [7] H. J. Jeon & S. Y. Park. (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53-169.
- [8] S. S. Han. (2001). *Development and effect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object relation theory: as focused on D. W. Winnicott's theory*(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9] J. Bowlby.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
- [10] D. Benoit & K. C. H. Parker. (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 [11] P. Klever. (2005).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unit functioning.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 253-264.
- [12] J. Belsky.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13] Z. Chen, R. X. Liu & H. B. Kaplan. (2008). Mediating mechanisms for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onstructive parenting: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29(12), 1574-1599.
- [14] J. Y. Kim, Y. S. Kim & Y. S. Lee.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strument for parental insight in child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6(1), 1-32.
- [15] S. H. Kang & C. N. Son. (2017). The effect of psychobiographical intensive interview on parent's insigh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characterist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495-503.
- [16] Y. S. Jang & Y. S. Cho. (2014). Parenting attitude: the effects of a mother's childhood experience and parental rol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145-163.
- [17] B. E. Moore & B. D. Fine. (1990).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C T: Yale University Press.
- [18] J. Y. Kim. (2012). *Instrume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s' insight in child counseling*(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19] E. Y. Hong.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in insights and symptoms in psychodynamic brief therapy: A preliminary study*(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20] P. Fonagy. (2010).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 Other Press.
- [21] Y. I. Kwon. (2011). A study on how a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s affected by her childhood experi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85-96.
- [22] M. D. Krechmar & D. B. Jacobvitz. (2002). Obser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across generation: boundary patters, attachment, and the transmission of care giving. *Family Process*, 42(3), 351-372.
- [23] H. M. Shin. (2016). *The development of parent reflection scale and exploration of its related variables: focused in toddler's parent*(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24] D. M. Fresco, M. T. Moore, M. H. M. van Dulmen, Z. V. Segal, S. H. Ma, J. D. Teasdale & J. M. G. Williams. (2007). Initi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periences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of decentering. *Behavior Therapy*, 10, 1-13.
- [25] B. N. Kim, Y. J. Lim & S. M. Kwon. (2010). The role of decenter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2), 573-596.
- [26] W. Y. Yu. (1998). *The causal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related variables effects on infant's social adjustment*(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27] M. Y. Heo. (2004).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ventory fo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170-189.
- [28] H. M. Choi. (1997). *A study of the family-of-origin scale*

with a sample of couples in their early marri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9] H. Cho, S. M. Choi, H. J. Oh & J. H. Kwon. (2011).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655-670.

[30] O. K. Hyeon & B. H. Cho. (1994). Development of the parent-satisfaction sca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2(1), 103-117.

[31] G. G. Jeon, S. J. Choi & B. C. Yang.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1), 59-76.

[32] G. G. Oh & Y. A. Kim. (2011). *ASEBA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assessment scale manual*. Seoul: Huno.

[33] J. A. Crowell & S. S. Feldman.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8, 976-984.

[34] J. S. Lee & M. J. Jung. (2007).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5), 85-94.

[35] J. R. Kwon. (2005). *The study of the marital adjustment according to self 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of the Family-of-Origin*(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6] J. W. Lee. (2002).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variables on marital conflict*(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37] S. Y. Park, E. I. Park & S. Y. Han. (2009).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6), 15-28.

[38] J. H. Lee & H. J. Moon. (2007).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aggress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6), 77-88.

[39] J. H. Kim & H. J. Moon. (2006). Variables related to the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4(1), 115-129.

[40] M. H. Kim. (2013). *A study of the organization and effects of a program increasing emotional parenting competency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41] J. H. Moon. (2015). *Operation process and experience*

search of group counseling-type education for parents of young children based on transactional analysi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42] S. D. Jang. (2016).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a self-understanding-based parent education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강 상 현(Kang, Sang Hyun)

[정회원]



- 2004년 2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석사)
- 2018년 8월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12년 10월 ~ 현재 : 마더심리학 습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심리상담, 심리전기

· E-Mail : malgnaldo@naver.com

손 정 략(Son, ChongNak)

[정회원]



- 197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임상심리학 석사)
- 198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임상심리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 관심분야 : 임상심리학, 건강심리학

· E-Mail : jrson@jbnu.ac.kr